

## 분만시 가족참여 필요성에 관한 연구

간 호 과  
조 교 수 최 인 회

### I. 서 론

임신은 여성에 있어서 정상 발달 과정으로 신체적 변화 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중요한 시기이며<sup>1-2)</sup> 분만은 임신에 뒤따라 경험하는 사건으로 대부분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긴장과 불안을 동반하게 되는데<sup>3-6)</sup> 구체적인 대상은 분만의 동통이라고 보고<sup>7-9)</sup>된바 있다.

통증의 양은 개인의 과거 경험, 산전교육, 정서적 안정, 출산력, 태아의 크기와 위치 그리고 분만 중 함께 하는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정서적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sup>10)</sup>고 하며 이<sup>11)</sup>는 분만 동통을 완화 시키는 방법으로 정서적 지지를 제시 하였는데 분만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 가족, 간호사 등이 산부 곁에 함께 있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지가 된다고 하였고, 분만 과정에서 전문적 지지와 가족 지지중 산부는 가족지지에 의해 더 높은 만족 정도를 경험 하였다고 하였다<sup>12)</sup>. 또 다른 연구<sup>13)</sup>에서는 분만 과정시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아 주는 것 뿐일지라도 산부는 그녀의 남편으로 부터 가장 많은 정서적 지지를 받는다고 주장하였으며 May<sup>14)</sup>도 남편이 분만 대기실에 참석함으로써 산부가 진통을 잘 조절하여 불안을 감소 시키도록 도와 주었다고 하였다. 남편도 방관자 처럼 대기실로 추방당하는 대신에 아기의 탄생에 열심히 참여하여 아내와 같이 경험을 나눔으로써 상호 친밀감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sup>15)</sup>고 하여 분만중에 남편을 비롯한 가족의 지지를 역설하고 있으며, 방<sup>16)</sup>은 전통적으로 출산 관리는 가족이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서구적 의료행위에 기반을 둔 간호보다 가족을 포함한 간호인 경우에 더 만족스럽게 지각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전국민 의료 보험의 실시와

더불어 안전한 임신과 출산 과정을 위해 거의 대부분 병원 분만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sup>12,17)</sup>이나 병원에서는 남편이나 가족의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정책,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병원 감염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고 의료 사고 및 간호 제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sup>18)</sup> 가족들의 분만실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산부는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적절한 사회적, 정서적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혼자서 출산을 경험하고 있고<sup>19-20)</sup> 가족과의 고립과 낯선 환경,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대한 공포로 심한 동통을 유발 시키는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다<sup>20)</sup>. 그러므로 분만중 산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요구가 무엇이며 현 병원 실정에서 어느 정도 욕구가 충족되는지 그리고 산부가 원하는 지지자는 누구인지 확인해 봄으로써 산부에게 안락한 분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마련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 하였다.

##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분만실내에 보호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K시내 종합병원 3곳을 선택하여 1993년 12월 4일 부터 1994년 2월5일까지 실시 하였다. 정상 분만 주수의 질식 분만을 경험한 산부 15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는데 설문지 내용은 총 13항으로 정서적 지지와 관련된 4문항, 신체적 지지와 관련된 5문항, 정보적 지지와 관련된 4문항 이었으며 분만중에 필요했던 간호요구를 그 정도에 따라 매우 불만족 하다(1점)에서 매우 만족하다(4점)까지 4단계로 표시하도록 하여 간호요구 정도를 조사하였고 실제로 제공 받았던 간호정도를 같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욕구충족 정도를 살펴 보았다. 이중 미비한 자료는 버리고 128명을 대상으로 산부의 분만중 간호요구 정도와 욕구에 대한 충족 정도를 분석 하였으며, 또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분만중에 실제로 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지행위를 살펴 보았는데 설문지는 산부에게 제시했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간호행위에는 '예', 제공할 수 없는 간호행위는 '아니오'로 응답하게 하였고 총 119명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설문지는 최등<sup>21)</sup>에서의 분만중 필요한 간호내용과 김<sup>22)</sup>, 장등<sup>12)</sup>의 산부지지를 위한 간호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하였으며 Cronbach  $\alpha = .8588$  이었다.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분만중 간호요구 정도와 간호욕구 충족정도를 보기위하여 F-test를 하였으며 산부가족의 지지간호 제공 정도를 보기 위하여 percentage로 분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산부의 간호요구와 간호욕구 충족정도 (표1)

표1) 간호요구 정도와 욕구충족 정도

영역	내용	간호요구정도 Mean(S.D.)	욕구충족정도 Mean(S.D.)	F	P
정서적 지지	격려한다	3.16( .89)	2.20( .99)	1.89	<.05
	위로한다	3.07( .90)	2.12( .99)		
	애기를 들어준다	3.02(1.00)	2.12( .95)		
	신뢰감을 형성한다	3.18( .87)	2.32(1.00)		
Total		3.11( .70)	2.19( .75)		
신체적 지지	손을 잡아준다	3.17( .94)	2.19(1.09)	2.34	<.01
	문질러 준다	2.87(1.05)	2.08(1.09)		
	자세를 바꿔준다	2.85(1.00)	1.97(1.09)		
	음료 및 식이 섭취를 도와준다	2.69(1.08)	1.94(1.06)		
	대소변 보는것을 도와준다	2.87( .92)	1.97(1.09)		
Total		2.89( .73)	2.03( .80)		
정보적 지지	산부의 건강상태를 설명한다	3.07( .92)	2.32(1.05)	2.34	<.01
	태아의 건강상태를 설명한다	3.34( .84)	2.41(1.08)		
	호흡법과 근육의 움직임을 설명해준다	2.97(1.00)	2.09(1.05)		
	분만진행 과정을 설명한다	2.99( .97)	2.19(1.08)		
	Total	3.09( .74)	2.25( .75)		

## 1) 산부의 간호요구 정도

## (1) 산부의 총 간호요구 정도

분만중 산부의 전체 간호 내용중 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태아의 건강상태를 설명한다”로 평균 3.34였으며 그 다음은 “신뢰감을 형성한다(3.18),” “손을 잡아준다”(3.17), “격려한다”(3.16) 순이었다. 요구도가 가장 낮았던 간호내용은 “음료 및 식이 섭취를 도와준다”로 평균 2.69였으며, “자세를 바꿔준다”(2.85), “문질러준다”(2.87) 와 “대소변 보는 것을 도와준다”(2.87) 순이었다.

## (2) 각 영역별 산부의 간호요구 정도

각 영역별 산부의 간호요구 정도를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영역에서는 “신뢰감을 형성한다”에 대한 간호요구가 평균 3.18로 가장 높았고 “애기를 들어준다”가 평균 3.02로 가장 낮았으나 이 영역의 간호요구는 평균 3.11로 높은 간호요구도를 보였다. 신체적 지지영역에서는 “손을 잡아준다”가 평균 3.17로 간호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음료 및 식이 섭취를 도와준다”가 평균 2.69로 간호요구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 영역의 간호요구는 평균 2.89로 나타났다. 정보적 지지영역에서는 “태아의 건강상태를 설명한다”에 대한 요구정도가 평균 3.34로 가장 높았고 “호흡법과 근육의 움직임 설명해 준다”에 대한 간호요구가 평균 2.9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 영역의 간호요구는 평균 3.09로 나타나 각 영역별로는 정서적 지지에 대한 간호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 산부의 간호욕구 충족정도

## (1) 산부의 총 간호욕구 충족정도

산부의 전체 간호 내용중 간호욕구 충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태아의 건강상태를 설명한다”로 평균 3.41이었으며 그 다음은 “산부의 건강상태를 설명한다”(2.32)와 “신뢰감을 형성한다(2.32) 순이었다. 간호욕구 충족정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음료 및 식이 섭취를 도와 준다”로 평균 1.94였으며 그 다음은 “자세를 바꿔준다”(1.97), “대소변 보는 것을 도와준다”(1.97) 순이었다.

## (2) 각 영역별 산부의 간호욕구 충족정도

각 영역별 산부의 간호욕구 충족정도를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중 간호욕구 충족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신뢰감을 형성한다”로 평균 2.32였으며, 간호욕구 충족정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위로한다”와 “애기를 들어준다”로 평균 2.12였고, 정서적 지지영역에 대한 간호욕구 충족정도 평균은 2.19였다. 신체적 지지중 간호욕구 충족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손을 잡아준다”로 평균 2.19였으며 가장 낮은 항목은 “음료 및 식이 섭취를 도와준다”로 평균 1.94였고 신체적 지지영역에 대한 간호욕구 충족정도 평균은 2.03이었다. 정보적 지지중 간호욕구 충족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태아의 건강상태를 설명한다”로 2.41이었으며 가장 낮은 항목은 “호흡법과 근육의 움직임을 설명해 준다”로 평균 2.09였고 정보적 지지영역에 대

한 간호요구 충족정도는 평균 2.25로 정보적 지지영역에 대한 간호요구 충족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산부의 각 간호 영역별 간호요구 정도와 간호요구 충족정도

간호요구 정도와 간호요구 충족정도를 비교한 결과 정서적 지지영역에서는 간호요구 정도가 평균 3.11, 욕구충족 정도는 평균 2.19로  $F=1.89,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신체적 지지영역에서는 간호요구 정도가 평균 2.89, 욕구충족 정도는 2.03으로  $F=2.34,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정보적 지지영역에서는 간호요구 정도가 평균 3.09, 욕구충족 정도는 2.25로  $F=2.34,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산부가 요구하는 분만중의 지지자.

산부가 요구하는 분만중의 지지자로는 남편(42.2%)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친정어머니(25.0%), 의사(21.1%) 순이었다(표2).

<표2> 임신부가 요구하는 분만중에 가장 주요한 지지자

지지자	No.	%
남편	54	42.2
친정어머니	32	25.0
의사	27	21.1
간호사	12	9.4
시어머니	3	2.3

2. 산부 가족의 분포 및 분만 참여요구

1) 산부 가족의 지지간호

산부 가족의 지지간호 내용으로 가장 많은 수의 산부 가족이 ‘예’라고 대답한 지지간호는 “손을 잡아준다”로 98.8%(108명)였으며, 그 다음이 “격려한다” 89.1%(106명), “신뢰감을 형성한다” 88.2%(105명) 순이었고, 산부가족의 지지간호내용으로 가장 적은 수가 ‘예’로 대답한 간호내용은 “호흡법과 근육의 움직임을 설명해 준다”가 20.2%(24명)였고 그 다음으로 “분만 진행상태를 설명한다” 27.7%(33명), “태아의 건강상태를 설명한다” 36.1%(43명) 순이었다.

각 영역별로는 정서적 지지에 대한 간호가 84.88%로 가장 많은 수에서 간호수

행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정보적 지지가 30.25%로 가장 적은 수에서 간호수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표3).

표3) 산부가족의 지지간호

영역	내용	아니오 No. (%)	예 No. (%)
정서적 지지	격려한다	13(10.9)	106(89.1)
	위로한다	16(13.4)	103(86.6)
	애기를 들어준다	29(24.4)	90(75.6)
	신뢰감을 형성한다	14(11.8)	105(88.2)
Total		15.12%	84.88%
신체적 지지	손을 잡아준다	11(9.2)	108(90.8)
	문질러 준다	38(31.9)	81(68.1)
	자세를 바꿔준다	38(31.9)	81(68.1)
	음료 및 식이 섭취를 도와준다	26(21.8)	93(78.2)
	대소변 보는것을 도와준다	26(21.8)	93(78.2)
	Total	23.32%	76.68%
정보적 지지	산부의 건강상태를 설명한다	75(63.0)	44(37.0)
	태아의 건강상태를 설명한다	76(63.9)	43(36.1)
	호흡법과 근육의 움직임을 설명해준다	95(79.8)	24(20.2)
	분만진행 과정을 설명한다	86(72.3)	33(27.7)
Total	69.75%	30.25%	

2) 산부를 동반한 가족의 분포

산부를 동반하여 병원을 방문한 가족의 분포를 보면 남편이 73명(61.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친정어머니로 19명(16.%)이었다(표4).

3) 산부가족의 분만참여 요구도

산부가족의 분만 참여 요구도를 살펴보면 91.6%(109명)에 해당되는 가족이 분만실에 들어가 산부와 만나기를 원하였고, 85.7%(102명)에 해당하는 가족이 원할 때마다 그리고 계속 분만실에 있기를 원하였으며, 62.2%(74명)에 해당하는 가족이 분만중 가족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표4).

표4) 산부 가족의 분포 및 분만 참여 요구도

		No.	%
방문자	남편	73	61.3
	친정어머니	19	16.0
	시어머니	10	8.4
	그외	17	14.3
이 병원을 방문 하게된 이유	타 병원에서의 권유	36	48.6
	종합병원으로 신뢰감이 있어서	17	23.0
	거리상 가까워서	12	16.2
	아는 분을 통해	9	12.2
분만실에 들어가 산부와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1) 예	109	91.6
	2) 아니오	10	8.4
얼마나 자주 분만 실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1) 1~2회	17	14.3
	2) 원할때 마다	72	60.5
	3) 계속	30	25.2
분만시 누구의 도움이 가장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남편	47	39.5
	의사	31	26.1
	친정어머니	27	22.7
	간호사	9	7.6
	그외	5	4.1

#### IV. 결과 및 고찰

1933년 영국의 의사인 Dr. Grantly Dick-Read는 처음으로 분만시 고통이 신체적인 자극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공포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공포-긴장-동통주기(fear-tension-pain)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분만동안 임부의 공포는 긴장을 초래하며 긴장은 분만동안 동통을 더 심하게 느끼게하고 이러한 동통으로 분만에 대한 공포가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sup>17)</sup>. 그러므로 분만 기간 동안 공포나 긴장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산부의 안위를 도모함은 건강한 모아를 위해 필수적이라 하겠다. Virginia<sup>23)</sup>는 임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회적 지지라고 하였으며, 많은 연구<sup>11,24-27)</sup>에서 산부를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고, 본 결과에서는 정서적 지지 영역중 “신뢰감을 형성한다”에 대한 간호요구 정도(3.1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의 제공자로는 의료팀이나 남편을 포함한 여러 가족들을 들 수 있겠는데, 실제로 우리의 병원체제를 보면 임신부가 계속적으로 그 병원에서 산전관리를 받았다 할지라도 분만실의 환경과는 별개의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팀 또한 전혀 다른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분만실에 입원하면서 의료팀에 대한 단독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더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많은 경우에서(36명,48.6%) 이 병원을 방문하게 된 이유가 “타 병원에서의 권유”라고 한다면 더욱 의료팀과의 친숙한 관계는 어려우리라 본다. 따라서 임신부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남편을 비롯한 가족의 지지가 중요하리라 보며 고<sup>28)</sup>도 효과적인 지지자원은 배우자이므로 배우자로 하여금 임부를 잘 지지하도록 하면 임부의 스트레스는 감소되고 건강은 증진될 것이라고 하였고, Sherrilyn<sup>12)</sup> 등도 전문적 지지 보다는 가족의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만시에 “누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에 남편 54명(42.2%),친정어머니 32명(25.0%),의사 27명(21.1%), 간호사 12명(9.4%), 시어머니 3명(2.3%)순으로 많은 경우에서 남편 및 가족 지지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김<sup>29)</sup>등에서도 진통증 함께 있고 싶은 보호자로 남편(79.3%)이 가장 높고 친정어머니(15.9%)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전<sup>30)</sup>등은 출산시 옆에 있어 주었으면 좋은 사람으로 의사,남편,친정어머니,간호사,시어머니 순이었다고 하여 본 결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최<sup>24)</sup>등은 가까운 가족이 산모를 격려함으로써 통증 감소를 도울 수 있다고 하였고, 가족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병원에서의 분만진통 측정치가 가까운 가족과 같이 분만에 임할 수 있는 조산소에서의 분만진통보다 통증강도,통증척도,통증표현,생리적 활력 징후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 가족의 지지를 강조하고 있다. 강<sup>31)</sup>도 임신과 출산과정에 남편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산부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을 더욱 강화 시킨다고 하였고 타 연구에서도 남편이 분만실에 참여함으로써 부인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게 되며<sup>(25-26)</sup> 아버지 자신의 역할적응을 더욱 쉽게 해준다



고 하였다<sup>32)</sup>. Peterson의 연구<sup>33)</sup>에서도 아버지가 산모와 함께 출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장애물을 제거한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아버지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정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Cronenwett과 Newmark<sup>27)</sup>도 분만에의 참여여부에 따라 부인에게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여 남편의 분만실 참여를 주장하고 있는바, 남편 및 가족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는 본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실제로 분만당시 임산부를 동반하여 병원을 방문한 지지자를 보면 남편이 61.2%(73명), 친정어머니 16%(19명) 순으로 나타나 임산부를 지지하기 위한 자원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참여를 배려한 분만실내 환경변화가 요구된다.

분만중 산부가 요구하는 간호를 분석한 결과 정서적 지지 평균은 3.11, 신체적 지지 평균은 2.89, 정보적 지지 평균은 3.09로 나타나 정서적 지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분만 과정에 대한 공포와 긴장은 통증을 심화시키게 되며<sup>17)</sup> 자궁수축으로 인한 동통일지라도 정서적 측면에서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고<sup>11)</sup> 임신 및 분만 중에는 심리적 요구가 증가한다고 하였던<sup>4)</sup> 여러 연구들을 보건대 분만중 정서적 지지는 긍정적 분만과정을 유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보며, 홍의 연구<sup>34)</sup>에서도 대상자가 인지하는 임신중의 배우자 지지와 분만진통 정도와의 관계를 고찰한 결과 정서적 지지가 분만진통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 문화를 보면 출산은 가족 구성원끼리 밀접한 상호관계를 갖게 하는 가족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 기간동안 가족들은 임산부에게 정서적 지지와 안정을 제공해 준다고 하였다<sup>35)</sup>.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중 "신뢰감을 형성한다"가 평균 3.18로 간호요구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격려한다"로 평균 3.16이었는데, 김등의 연구<sup>29)</sup>에서도 "격려한다"와 "위로한다"는 산부가 가족들로 부터 기대하는 간호요구로 각각 81.7%와 84.1%의 산부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살펴볼 때 산부가 가족으로 부터 충족하고 싶어하는 간호요구로 보여진다. 장등의 연구<sup>12)</sup>에서는 "격려한다"에 대해 95.0%의 산부가족이 산부 지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산부가족이 할 수 있는 간호로 "격려한다"에 대해 89.1%(106명)의 가족이 '그렇다'고 응답한 본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간호요구 충족정도를 보면, 정서적 지지는 총 평균 2.19였고 특히 욕구충족 정도가 가장 높았던 "신뢰감을 형성한다" 나 "격려한다"에 대한 욕구충족 정도 평균이 각각 2.32, 2.20으로 비교적 낮은 정도였으며, 임산부의 간호요구 정도(3.11)와 욕구충족 정도(2.19)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 $F=1.89, p<.05$ )가 있어 간호요구 정도에 비해 욕구충족이 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김등<sup>29)</sup>은 분만과정에 가족, 특히 배우자의 관심이 산부의 정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고 본 연구에서 임산부의 요구가 높았던 "신뢰감을 형성한다"에 대해 88.2%의 가족이 산부에게 수행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격려한다"에 대해 89.1%의 가족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평균 84.88%의 가족이 정서적 지지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분만실내에 가족을 포함시킴으로써 분만중 산부의 간호요

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정서적 측면의 지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며 정서적 측면의 산부 욕구충족을 위한 보완점이 되리라 사료된다.

신체적 지지에 대한 임신부의 간호요구 정도를 보면 “손을 잡아준다”가 평균 3.1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문질러 준다”와 “대소변 보는것을 도와준다”로 평균 2.87이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 따르면 출산과 관련된 전통적인 돌봄은 대상자의 가족에 의해 제공되었던 것으로<sup>35)</sup> 백<sup>18)</sup>은 우리나라 산부들은 전통적으로 분만시에 남편의 허리띠나 친정어머니의 허리를 잡고 분만 동통을 극복하였다고 하였으며, 적절하게 자세를 취해주거나 접촉을 해주고 혹은 음식이나 자극을 줌으로써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하였다<sup>35)</sup>. Tryon<sup>36)</sup>은 분만중인 산부에게 등을 문질러 주거나 손을 잡아주었을때 편안함을 느꼈다고 하였으며, Reeder<sup>1)</sup>도 분만중에 있는 산부에게 등마찰이나 손을 잡아주는 것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면 진통에 대처하는 능력이 증가된다고 하였고, Widenbach<sup>37)</sup>도 분만중에 산부의 등을 문질러주는 것은 이완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며, 이<sup>11)</sup>도 분만 동통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궁수축이 오는 동안 복부 맞사지나 산부의 등 아랫 부분을 맞사지 해주는 신체적 지지를 제시 하였다. 김등<sup>29)</sup>에서는 산부가 기대하는 가족지지중 신체적 지지영역에서 “손을 잡아준다”에 89%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가장 기대하는 간호요구였으며, 그 다음이 “문질러준다” (52.4%, 43명)로 나타나 본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며, 장등<sup>12)</sup>에서는 97.5%(78명)의 가족이 “손을 잡아준다”라는 지지간호에 ‘그렇다’고 하였고, 63.8%(51명)의 가족이 “문질러 준다”라는 지지간호에 ‘그렇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에서 가족의 신체적 지지간호중 가장 높은 “손을 잡아준다”와 “문질러준다”에 각각 90.8%, 68.1%의 가족이 수행할 수 있는 지지간호라고 대답한 결과와 일치하고있다. “손을 잡아준다”와 “문질러준다”에 대한 욕구충족 정도를 살펴본 결과 각각 평균 2.19와 2.08로 신체적 지지에 대한 욕구충족정도로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산부의 요구정도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며 신체적 지지에 대한 간호요구 정도(2.89)와 욕구충족 정도(2.03)를 비교해본 결과  $F=2.34$ ,  $p<.01$ 로 산부의 간호요구와 욕구충족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신체적 지지간호 역시 가족들이 분만실내에 참여함으로써 산부의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지지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되며 신체적 지지를 통한 안위감이 증진될 것으로 사료된다.

정보적 지지에 대한 산부의 간호요구 정도를 살펴보면 “태아의 건강상태를 설명한다”가 평균 3.07로 가장 높았으며, 이 지지간호는 모든 간호항목중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고 그 다음이 “산부의 건강상태를 설명한다”(3.07)로 나타났다. Dlouby<sup>38)</sup>등은 환자는 검사결과에 대해 가장 알기를 원한다고 하였고, 조<sup>39)</sup>도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고 질병치료에 도움이 되는 설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던 점들을 볼 때 분만실에서도 분만 진행중 태어나 산부의 건강상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겠다. 이<sup>11)</sup>도 분만 진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분만 동통을 완화시키는 간호중재라고 하였으며, 간호사의 역할은 환자를 지도하고 시범을 보여주어 이완된 체위로 인한 산부

의 안위를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sup>9)</sup>. 정보적 지지 영역에 대한 산부의 욕구충족 정도를 살펴보면 “태아의 건강상태를 설명한다”가 2.4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산부의 건강상태를 설명한다” (2.32) 순이었으며, 가족의 정보적 지지영역에 대한 지지정도를 보면 37%(44명)에서 “산부의 건강상태를 설명한다”를, 36.1%(43명)에서 “태아의 건강상태를 설명한다”는 지지간호를 수행해 줄 수 있다고 ‘예’로 답하였고 평균 30.25%로 정보적 지지영역의 가족지지 정도가 낮게 나타나 특별한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영역으로서 의료팀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야할 영역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 산부의 요구정도(3.09)와 욕구충족 정도(2.25)를 비교해보면  $F=2.34$ ,  $p<.01$ 로 요구정도와 욕구충족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앞으로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분만중 산부는 정서적 지지에 대한 욕구(3.11)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정보적 지지(3.09), 신체적 지지(2.89)순 이었고 산부의 간호욕구 충족정도는 정보적 지지영역(2.25)에서 가장 높았으나 낮은 정도였으며, 그 다음이 정서적 지지(2.19), 신체적 지지(2.03)순이었다. 산부의 간호요구에 따른 간호욕구 충족정도를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p<.05 \sim p<.01$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 산부의 간호요구 정도와 욕구충족 정도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정적인 분만경험 지각은 부모로서의 역할 전환 단계에서 모성 역할 적응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아니라 영아와의 상호작용에도 영아의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sup>40-43)</sup> 것을 볼 때 적절한 지지를 제공 받음으로 해서 분만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료팀에 의한 대상자의 돌봄 행위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족에 의하여 효과적인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분만실 내의 환경 개선 및 제도적 장치를 모색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 V. 결 론

본 연구는 분만시 가족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1993년 12월 4일부터 1994년 2월 5일까지 보호자를 통제하는 K시 종합병원 3곳에서 설문지를 통해 조사되었으며, 128명의 산부와 119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분만중 산부의 간호요구 정도와 간호욕구 충족정도

- (1) 산부의 간호요구 정도는 정서적 지지(3.11)영역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정보적 지지(3.09),신체적 지지(2.89) 순 이었다.
- (2) 산부의 간호욕구 충족정도는 정보적 지지영역(2.25)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정서적 지지(2.19), 신체적 지지(2.03) 영역이었다.

- (3) 산부의 간호요구에 따른 간호욕구 충족정도를 비교한 결과 정서적 지지 영역은  $F=1.89$ 로  $p<.05$  수준에서, 신체적 영역은  $F=2.34$ 로  $p<.01$  수준에서, 정보적 영역도  $F=2.34$ 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산부의 간호 요구정도와 간호욕구 충족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산부가 요구하는 분만중의 지지자는 남편(42.2%), 친정어머니(25.4%),의사(21.1%) 순 이었다.

## 2) 분만중 산부 가족의 지지간호

- (1) 산부 가족의 지지간호를 보면 정서적 지지영역에서는 84.88%, 신체적 지지영역에서는 76.68%, 정보적 지지영역에서는 30.25%에 해당하는 가족이 각 간호에 대한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91.6%(109명)에 해당하는 산부가족이 분만실내 참여를 원하였다.

## · 참고문헌

1. Reeder, S. J. & Mastroianni, L. L., *Maternity nursing*, 16 edith,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 (1987)
2. Nadelson, C., "Normal" and "Social" aspects of pregnancy, *obstetrics & Gynecology*, 41, 611 (1973)
3. 안숙희, 박영숙, 임부의 사회 심리적 적응과 분만경험 지각에 대한 연구, 간호학회지, 22(2), 157-173 (1992)
4. Kartshner, *Fres, D. A. Journal of OB & GY.*, 60(1), 19-29 (1950)
5. 강정희, 임신부의 불안 공포의 원인과 정도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0(2), 1-10 (1980)
6. 김원희, 신영주, 한국임부의 출산에 대한 불안도에 관한 연구, 부산의대 잡지, 22(1), 143-153 (1982)
7. 박영숙, 산욕기 초산부의 모성 전환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8. 이미라, 분만 동통의 의미, 대한간호, 19(3), 41-43 (1980)
9. 이경혜, 정신적 무통분만법, 대한간호, 19(3), 41-43 (1980)
10. Peggy-anne Field, "Relief of pain in labor," *Canadian Nurse*, December, (1974)
11. 이미라, 분만 동통의 완화, 대한간호, 27(3), 22-29 (1988)
12. 장순복, 최연순, 김혜숙, 조영숙, 이해우, 산부가족의 분만참여요구, 대한간호, 31(3), 62-75(1992)
13. Goodmem, R., "Psychological support in labor," *In obstetrical yearbook*,

- Vol. 3, *chicago hospital topics*, 35-37 (1966)
14. May, K. A., "3 phases of father involvement in pregnancy," *N.R.*, 31(6), 337-342 (1982)
  15. 박영숙, 라마즈 출산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 *간호학회지*, 17(1), 52-63 (1987)
  16. 방매륜, 출산에 관한 한국의 전통문화가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17. 이광혜, 여성보건, 수문사, 118(1990)
  18. 박명자, 한국에 있어서의 출산 및 육아 민속에 관한 모자 보건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89)
  19. Narr, Kathleen L. et al., "Explaining pain and Enjoyment in childbirth,"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18, 260-275(1977)
  20. 이정화, 분만 과정시 남편의 참여가 초산부의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83)
  21. 최연숙, 조숙희, 장춘자, 모성간호학, 수문사(1987)
  22. 김명자, 산부의 분만대기중 간호요구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23. Virginia Peterson Tilden, The relation of selected psychological variables to single status of adult woman during pregnancy, *N.R.*, 33(2), 102-107(1982)
  24. 최연순, 장순복, 조동숙, 분만진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간호학 논문집, 8집, 86-103 (1985)
  25. Bradly, R., "Father's presence in delivering rooms," *Psychosomatics*, 3, 474-479(1962)
  26. Zax, M., Sameroff, A. J., and Farnum J.E., "Childbirth education, maternal attitudes and delivery," *J. of OB & GY.*, September, 185-190(1970)
  27. Cronenwett, L. and Newmark, L., "Father's response to childbirth," *N.R.*, 23, 210-217 (1974)
  28. 고명숙, 임산부가 지각한 배우자의 지지행위와 태아 애착행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29. 김혜숙, 최연순, 장순복, 전은미, 정재원, 산부의 가족 분만 참여요구, 모자간호학회지, 3(1), 38-48(1993)
  30. 전정자, 유은광, 이정섭, 우리나라 임부여성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태도조사, 대한간호협회 신문 2월 25일자 (1988)
  31. 강남미, 아버지의 산전간호 참여도와 신생아에 대한 애착행위 인식 정도와의 상관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5)
  32. Abelin, E., "Some father observations and comments on the earliest

- role of the father," *Int. J. Psycho. Ant.*, 56, 293-302 (1975)
33. Peterson, G., Mehl, L. and Leidermen, H., "The role of some birth related variables in father attachment," *Am. J. of Orthopsychiatry*, 49, 330-336(1979)
  34. 홍명자, 산부가 인지하는 임신중의 배우자 지지와 분만 진통과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35. 강문정, 제주도의 전통적 출산관리에 관한연구, 모성간호학회지, 3(1) 5-24, (1993)
  36. Tryon, P. A., "Use of comfort measure as support during labor," *Nursing Outlook*, 8(5), 256(1960)
  37. Wiedenbach, "Nurse-Midwifery : purposes, practice and opportunity," *Nursing Outlook*, 8(5), 256 (1960)
  38. Dlouby, Alice, et al, "What patients want to know about their diagnostic test," *Nursing Outlook*, 11, 265-267(1963)
  39. 조결자, 임상검사에 관한 환자의 요구와 간호원의 환자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간호논문집, 2, 103-113 (1976)
  40. 최연순, 분만준비교육, 대한간호, 31(2), 86-101 (1992)
  41. Cropley, Catherine and others, Assessment tool for measuring maternal attachment behaviors, *Current practice obstetric & gynecological nurse*, 1, 16-28 (1976)
  42. Mercer, R. T.,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tudying the factors that impact on the maternal role, *N.R.*, 30, 70-78(1981)
  43. 장춘자, 접촉:산부의 지지적 간호, 대한간호, 19(43), 49-53 (1980)

## A study on the needs of family participation during labor process

Choi, In-hee  
Dept. of Nursing  
Kwangju Health college

### > Abstract <

This study was done to find out the need of family participation during labor process. The study was carried out with a sample of 128 postpartum women for whom there were no complications either for the mother or the newborn and a sample of 119 women's family in 3 general hospitals in K city by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gathered from 4th, Dec., 1993 to 5th, Feb., 1994 and analysed using F-test, percentag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degree of nursing need and need satisfaction of nursing care during first labor

(1) The degree of nursing need was the highest in the area of emotional support(3.11), followed by, in informational support(3.09) and physical support(2.89) in that order.

(2) The degree of need satisfaction of nursing care was the highest in the area of informational support(2.25) followed by, in emotional support(2.19), and physical support(2.03) in that order.

(3) In the comparison of the degree of nursing need and need satisfaction of nursing care, the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n in all area(emotional support :  $p < .05$ , physical support :  $p < .01$ , informational support :  $p < .01$ ).

(4) The priority of family members from whom a pregnant woman wanted to support as appeared in the order of her husband(42.2%), mother (25.4%), doctor(21.1%) in that order.

2) 91.6% family members wanted to their participation in delivery room during first labor and their able support for a woman in labor by way of the area of emotional support(84.68%), physical support(76.68%), informational support(30.25%).